

삼성전자 영업이익 10분기 만에 ‘최악’

올 1분기 6조2천억…‘반도체 편중’ 부작용 현실화
디스플레이 적자…스마트폰·소비자가전은 ‘선전’

삼성전자 올 1분기 실적이 최근 10분기 가장 적은 흑자를 내면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분기 10조원을 넘어섰던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원을 밑돌았고, 또다른 부품 사업인 디스플레이 부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특히 2분기에는 성적이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도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17년과 지난해에 기록했던 실적 신기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30일 올 1-3분기(1분기) 연결 기준 확정 실적으로 매출 52조3천855억원, 영업이익 6조2천333억원을 각각 올렸다고 공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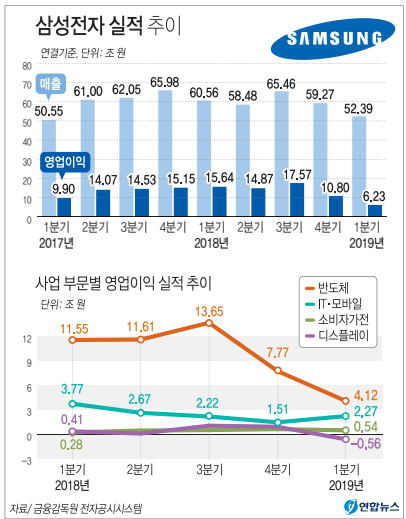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60조5천637억원)보다 13.5% 줄었으며, 전분기(59조2천650억원)보다도 11.6% 감소했다. 지난 2017년 1분기(50조5천5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15조6천422억원)보다 무려 60.2%나 감소했으며, 전분기(10조8천6억원)에 비해서도 42.3% 줄어들면서 거의 ‘반토막’이 됐다. 지난 2016년 3분기(5조2천억원) 이후 10분기 만에 최저치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25.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9%로, 수익성도 급격히 악화했다. 역시 2016년 3분기(10.9%) 이후 가장 낮았다.

주력인 반도체 사업의 이익 급감이 실적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지난 2년 간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반도체 편중’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반도체 사업은 매출 14조4천700억원에 영업이익 4조1천200억원을 기록하며 2016년 3분기(3조3천700억원)



이후 최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흑자가 5조원을 밑돈 것은 2016년 4분기(4조9천500억원) 이후 9분기 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28.5%로, 역대 최고치였던 1년 전(55.6%)은 물론 업황 하락이 본격화했던 전분기(41.4%)와 비교해서도 ‘수직하락’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올레드 패널 출하 감소와 LCD 패널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5천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1분기(2천700억원) 이후 첫 분기 적자다.

스마트폰 등 IM(IT·모바일) 부문은 갤럭시 S10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분기(1조5천100억원)보다 영업이익이 50.3%나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3조7천700억원)에는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지난해 같

은 기간(2천800억원)의 2배 수준인 5천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는 “1분기 메모리 사업의 실적이 고객사들의 재고조정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하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플렉시블 올레드 가동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다운틴(하락곡면)’의 직격탄을 맞으며 최근 10분기 만에 가장 적은 흑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홍보관 일라이트.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실시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올해 2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급휴가를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확대하는 것이다.

30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다만,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된다.

항공기 운항과 안전 업무에 필수적인 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회사는 공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中企 “5월 경기전망 긍정적”

업황전망 건강도지수 95.5…2개월 연속 소폭 상승

광주·전남 중소기업 5월 경기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201개를 대상으로 5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

HI)가 전월(94.1)보다 1.4p 상승한 95.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2개월 연속 소폭 상승해 상승기저는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기회복에 대한 큰 모멘텀은 다속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93.4) 대비

2.4p 상승한 95.8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전월(95.3) 대비 0.2p 하락한 95.1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월(95.1) 대비 1.6p 상승한 96.7이며, 비제조업은 전월(93.3) 대비 1.2p 상승한 94.5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93.6→93.8)과 수출전망(98.0→98.3)은 소폭 상

승한 반면, 경상이익전망(86.9→84.1)과 자금사정전망(81.5→78.4)은 하락했다.

또한 역주세인 고용수준전망(97.8→99.5)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해 기업의 일손 부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경영여로(복수응답) 결과를 보면 ‘내수부진(68.7%)’, ‘인건비 상승(60.2%)’, ‘업체간 과당경쟁(50.2%)’, ‘원자재 가격상승(25.4%)’, ‘자금조달 곤란(24.4%)’ 순으로 집계됐다.

/임후성기자

종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낼 수 있다.

홈택스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고자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관련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부서가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신고서다.

납부자는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서 세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ARS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본인공제만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안내했지만 올해는 배우자·자녀공제를 추가 반영한다.

/박은성기자



호남통계청 ‘통계와 함께하는 경찰체험’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6일 광주서부청소년경찰학교와 협업체 양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통계와 함께하는 경찰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통계의 중요성, 생활 속의 통계뿐만 아니라 안전·학교 폭력관련 통계에 대해 소개, 학교폭력 방지 및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직접 경찰복을 입고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학생들이 통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전남농협, 담양 딸기 수출확대 간담회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담양농협 2층 회의실에서 담양군 딸기 수출확대를 위한 ‘담양딸기 수출사업 농가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담양농협, 봉산농협, 창평농협과 출하농가 대표들이 참석해 딸기품목에 대한 해외동향 및 수출현황을 분석하고 담양딸기에 대한 수출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2019년도 마케팅전략과 세부목표 수립을 통해 전문 수출단지 조직화 및 장기적인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석기 본부장은 “담양을 필두로 전남 딸기 수출능가의 조직화 및 전문 수출단지 육성을 통해 딸기를 전남의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손보험회, 고령자 교통안전 물품 지원

손해보험협회 서부(호남·충청) 지역본부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사업과 전남지역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 추진과 관련, 고령자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보성경찰서에 지난 29일 교통안전물품(노인용 지팡이 100·이륜차 안전 헬멧 40개) 전달식을 가졌다.

김양식 본부장은 “향후에도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고 보행약자인 고령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오천경매

투자 관련 모든 상담 010-3605-5000

신창동 근린상가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금매 전문

***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썬매물 바로 계약합니다
===매수고객 다수 현금들고 대기중입니다.

[빌딩]
○ 유럽풍 최고급 상가주택
도심속 전원별장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접
대지230㎡ 건335㎡ 매가:상담후결정
○ 계림3지구 재개발지 대로변 상가50% 급처분
2차선도로접 대지445㎡ 건1,500㎡
급매가11억(3.3㎡당820만원)
○ 사옥, 병원, 은행 건물
대인동 대단지 아파트, 대인시장인접
4차선대로변 대지515㎡ 건평2,100㎡
병원 허가병상70개
매가 : 협의후 결정(임대도 가능)
○ 산수5거리 대로변 상가
대지162㎡ 건평500㎡ 급매가 7억

지역별, 금액별, 종류별, 매물 다량 확보중입니다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경매 투자자

오천경매 010-3605-5000